

□ 자유연제 초록 양식

지각된 낙인 수준이 에이즈 감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케냐 나이로비 코로고초 빈민지역 HIV/AIDS 감염여성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internalized stigma level on the mental health : HIV/AIDS infected Women in Korogocho, Nairobi, Kenya

유정, 김영숙, 윤희상, 최남희, 한동일
Jeong Ryu[†], Youngsook Kim, Heesang Yoon, Namhee Choi, Dongil Han

서울내러티브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Seoul Institute for Narrative Studies,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 유정: jeongryu@gmail.com

ABSTRACT

서론

HIV/AIDS 감염자들은 우울, 심리충격, 분노 등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우울로 대표되는 정신건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연구(Wingood, et. al., 2008; Tesfaye & Bune, 2014)에 의하면 경제 활동 상태, 혼인유형, 교육수준, 개인이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 및 사회적지지 수준은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각된 내적 낙인 수준은 에이즈 감염자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내적 낙인 수준을 중심으로 에이즈 감염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 시내에 위치한 대표 슬럼 지역인 코로고초(Korogocho)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여성 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토착어인 스와일리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18~60세의 여성들로, 현재 KENWA(Kenya Network of Women with AIDS) 등 에이즈감염여성을 지원하는 NGO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방법

본 연구는 총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구조화된 영문 설문지를 이용해 훈련된 현지인 조사자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에이즈 감염여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사전 트라우마 경험

(Pre Traumatic Experience; PTE), 지각된 낙인 수준 측정 척도(Internalized Stigma Scale; ISS)과 정신건강 측정 척도(심리충격 척도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우울 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조사대상 여성 124명을 기술 통계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 38.1세, 에이즈로 인해 잃은 자녀 수는 평균 0.57명이고, 에이즈 감염여성 69%(87명)이 미혼·이혼 및 별거 등의 결혼상태를 나타냈다. 또한, 조사 대상자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1000실링 미만의 저소득 집단이 59%(70명)를 차지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별거 상태인 집단이 미혼 또는 기혼 집단과 비교하여 각각 우울($t=3.253, P=.002; t=2.412, P=.021$) 및 ISS($t=3.074, P=.003; P=3.524, P=.001$) 에서 낮은 점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감염여성들의 지각된 낙인 수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SS 평균 점수인 59.7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ISS 점수가 평균이상인 집단에서 심리충격,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IES-R($t=4.537, P=.000$), CES-D($t=4.540, P=.000$)). 에이즈 감염여성의 지각된 낙인 수준과 정신건강 측정 척도 점수와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각각의 척도에서 유의미한 결과(ISS와 IES-R($F(1, 123) = 37.770, P=.000$)), CES-D($F(1, 123) = 57.116, P=.000$)) 가 나타났다. 또한, 트라우마 경험이 지각된 낙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F(1, 123) = 11.712, P=.001$)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낙인 수준과 정신건강 측정 척도 점수 간 상관분석 결과 각각 정의 상관관계[IES-R($r=.486, P=.000$), CES-D($r=.565, P=.000$)]가 나타났다.

결론

연구결과 에이즈 감염여성의 경우 지각된 내적 낙인 수준과 정신건강 측정 척도 간 정의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낙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심리충격, 우울 및 탄력성 회복 수준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을 통해 지각된 낙인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정신건강 측정 척도 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종합하면, 지각된 낙인 수준은 에이즈 감염여성의 정신건강에 해롭고, 깊게 관련되는 중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고찰

에이즈 감염여성에게 대한 내적 낙인 수준,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정신건강 수준에 대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에이즈 감염여성의 지각된 내적 낙인은 에이즈 감염여성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것을 완화시킬 교육 및 프로그램이 요구된다.